

2005학년도

목회학석사 학위논문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한 사회변혁에 관한 연구
Studies on Social Transformation through
the Reformation in 16th Century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신 학 과

권 순 홍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한 사회변혁에 관한 연구
Studies on Social Transformation through
the Reformation in 16th Century

指導教授 강 정 진

이 논문을 목회학 석사(M.Div)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신 학 과
권 순 홍

권순홍의 목회학석사 학위논문 인준함

심사위원장 박 일 민 (인)

심 사 위 원 김 근 수 (인)

심 사 위 원 윤 익 세 (인)

감사의 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한 없는 감격과 감사가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넘쳐 나옴을 고백합니다. 또한 칼빈대학원 3년의 과정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시간들이었음을 이제야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년간 열성을 다해 지도하여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성심성의껏 논문을 지도해주신 강정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오랜 세월, 아니 지금까지도 애절한 눈물의 기도와 뜨거운 사랑으로 부족한 아들을 뒷받침해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격려와 도움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마다 기도와 물질로 도와준 사랑하는 동역자님 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인 성현교회에서 저를 지도해주신 최재호 목사님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믿음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를 통하여 제게 힘이 되어 주었던 어린이 사역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로서의 길을 위해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힘이 되어 주었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11월

권 순 홍

목 차

제 1 부 서 론	3
제1장 연구의 동기	3
제2장 문 제 제 기	5
제3장 연구의 방법	6
제 2 부 종교개혁의 배경	7
제1장 교황청의 결별	7
제2장 르네상스	9
제3장 신비주의	11
제 3 부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적 세계관	12
제1장 마르틴 루터	12
1)루터의 직업관	15
2)루터의 경제관	16
3)루터의 정치관	19
4)루터의 교육관	22
5)루터의 윤리관	24
제2장 쾰링글리	25
1)쾰링글리의 경제관	25
2)쾰링글리의 사회관	26
제3장 존 칼빈	27
1)칼빈의 경제관	28
2)칼빈의 교육관	31
3)칼빈의 문화관	33
제4장 존 녹스	36

1) 존 녹스와 칼빈	36
2) 존 녹스의 신학사상	37
3) 존 녹스의 사회개혁	39
제 4 부 결 론	42
* Bibliography	52

제 1 부 서 론

제1장 연구의 동기

종교개혁은 성경 위에 우뚝 서 있던 전통과 관습을 끌어내린 교회사에서 하나의 혁명적인 사건이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Sola scriptura(오직 성경으로), Sola fide(오직 믿음으로), Sola gratia(오직 은혜로)라는 사상 위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중세시대의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석한 교회를 초대교회의 성경 중심의 교회로 다시 되돌린 개혁운동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교회 개혁이었지만, 그 파급적인 효과는 교회내부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각계 각층의 변화로 소용돌이 쳤다. 1560년 존 녹스의 파란 만장의 노력끝에 이루어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국가적 차원에서 단행되어졌다.

종교개혁은 스코틀랜드에서 하나의 새로운 기원을 마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스코틀랜드의 정치, 문화, 교육에 근대화이 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¹⁾ 또한 존 녹스와 메리 여왕과의 회견에서 여왕이 그에게 과연 신민들, 백성들에게 국왕을 대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고 묻자, 녹스는 주저하지 않고 만약 영주들이 그들의 권력을 남용한다면, 존경하는 귀부인이시여, 그들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저항할 수 있음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이론이, 비록 민주적 평등주의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정치적 절대주의 이론을 격파하여 결국 국가의 제한적 주권의 이론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은 단지 프로테스탄트 진영만은 아니었지만, 종교개혁의 사상은 사무엘 러드포드의 '법이 왕이다'라는 사상 위에서 확고히 서서 정치 영역에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²⁾ 그리고, 종교개혁은 경제영역에서도 그 파급 효과가 컸다. 종교개혁 이후

1) 홍치모,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영국혁명」,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1), p.56.

2) Bainton. H. R, 「16세기의 종교개혁」, 서영일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2), pp. 283-284.

의 개신교 신앙은 자본주의의 특징인 노동과 이윤의 추구라는 특징을 가진 인생관과 흡사하므로 자본주의의 보편적인 파급을 부채질했으며, 또한 그 당시에 만연된 수도원주의를 배척함으로써 게으름과 구걸을 천시하게 되어, 비생산적으로 사회에 기생하는 것들을 감소시켰다.³⁾ 이러한 종교개혁의 파급효과는 사회 제 분야에서 여실하게 드러났다. 종교개혁은 신앙의 회복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되찾는 개혁이었다. 골로새서 1:18⁴⁾의 말씀처럼 종교개혁은 신앙 뿐만 아니라 만물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되돌려 드리는 운동이었다. 역사 가운데 주님의 주권 회복을 위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

종교, 정치, 예술, 법, 문학 등 사회 제 분야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의 축출,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종교개혁의 시발을 미리 예고하였던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서 성경의 권위를 되살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하고, 또한 세상에서 성경의 권위를 구축하고 성경적인 세계관내에서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즉, 종교개혁자들의 관심은 교회 안에서만 맴돌지 않았고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 만약, 종교개혁자들의 순수한 관심이 오직 교회의 순수성 회복에만 있다면, 성경과 법, 성경과 문학, 성경과 정치, 성경과 경제, 성경과 문화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물론, 교회의 변화가 없다면 궁극적으로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교회의 순수성 회복이 우선이다. 그러나, 교회의 순수성 회복은 곧이어 사회의 성경적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공헌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교회의 순수성 회복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에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교회 이기주의를 부채질한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종교개혁자

3) Ibid., pp. 288,289.

4)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들은 교회의 개혁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개혁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본 논문에서 연구할 것이다.

제2장 문제 제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사회참여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개교회의 부흥에 전력을 투자하였으므로 전도와 영성의 측면은 많은 강조를 하였지만, 개교회의 부흥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사회참여에 대한 강조는 소극적이었다. 칼빈주의에 입각한 신앙을 강조하지만, 칼빈주의는 사회참여에 대한 여지를 별로 남겨두지 않는 듯 하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강조하지만, 종교개혁의 정신은 사회참여를 배제한 채, 오직 신앙만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동전의 한 면만을 강조했다면, 동전의 다른 면도 당연히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있지 않지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면, 마땅히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물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하여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해야만 한다. 단,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는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종교개혁이라는 동전의 다른 면은 바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프리즘을 가지고 사회를 개혁한 적극적인 사회참여이다. 지금까지는 동전의 한 면만이 전부인양 편파적으로 종교개혁을 해석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종교개혁의 다른 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다른 면은 종교개혁자들의 사회참여에 관한 부분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사회참여를 바라보는 올바른 종교개혁적 시각이 정립되어지기를 바라고 이로 인해 사회의 개혁에 한국교회가 일조를 하여 사회 전반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란다.

제3장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인 방법으로 행해질 것이다. 객관적으로 주제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모아서 종교개혁이 필연적으로 사회개혁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종교개혁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사회개혁에 관한 자료를 찾아서 이 논문이 의도하는 바를 입증할 것이다. 여기는 먼저 종교개혁의 배경이 언급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사회의 성경적 개혁의 동인이 되는 성경적 세계관의 부재를 입증하고자 함이다.

교회와 사회전반에 걸쳐서 성경적 세계관의 부재에 반발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본 종교개혁자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에 막대한 기독교적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들을 다룰 것이다. 즉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은 편집 비평과 유사하다. 본 연구의 주제에 부합되는 자료를 찾아서 배열하여 주제를 입증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교리적인 부분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고의 주제가 종교개혁을 통한 사회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고,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사회개혁적인 부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의 교회와 사회개혁에 관한 양면적인 부분을 사회개혁이라는 한 면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공헌이 과소평가 되고 왜곡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러나 종교개혁의 본질인 성경적 세계관을 통한 교회와 사회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를 바라본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끝으로 이 논문은 종교개혁에 관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사회개혁의 틀 안에서 한정하여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개혁의 틀 안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인물들을 연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전체적인 큰 줄기는 기독교인의 사회참여와 사회개혁인데, 전제는 종교개혁의 본질인 성경적 세계관의 프리즘을 통한 사회참여와 사회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2부 종교개혁의 배경

종교개혁의 연대는 16세기(1517-1564)이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권에서 교회개혁의 필요성을 감지했던 것은 중세 말부터이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의 작품 *De moribus et officio episcoporum*에서는 교회제도 갱신의 초석을 놓으려 시도했었고, 다른 여러 과제들 가운데서도 특히 머리에서 지체에 이르는 교회 개혁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콘스탄스 및 바젤 공의회에 만족하지 않고, 15세기 말 수많은 신도들은, 성직자권, 평신도권 간에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전한 세기 정도 15세기-16세기의 유럽의 사회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종교개혁의 배경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은 중세기에서 근대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시대는 교회와 사회 생활을 분리할 수 없는 시대였으나,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상을 면밀히 관찰하면 성경과 교황청의 결별, 성경적인 토대를 벗어난 르네상스 운동의 만연, 성경을 벗어난 신비주의의 발흥 즉 성경적 세계관과 단절된 시대상을 엿볼 수가 있다. 이러한 교회를 포함한 사회의 총체적인 반기독교적인 문화의 위기가 종교개혁의 힘찬 출발의 동인이 되었다.

제1장 교황청의 결별

15세기가 끝나감에 따라 교회가 무언가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음이 명백해졌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갈망 하였다. 교황청의 몰락과 부정부패는 주지의 사실이었다. 교황청이 아비뇽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는 프랑스 왕실의 도구 역할을 했으며, 그 후에는 전 유럽을 두 개, 혹은 세 개로까지 갈라놓았던 대분열에 의하여 더욱더 약화 되었다. 교황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여러 인물들, 혹은 이를 탈취하고자

하였던 인물들은 자격도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후 분열의 상처가 가지자마자 교황청은 다시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르네상스의 영광에 더욱 심취하는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들 교황들은 전쟁, 음모, 뇌물, 그리고 탐욕을 통하여 고대 로마의 영광을 복구시키고, 혹은 이보다 더 능가해보고자 노력하였다.⁵⁾ 그리고 루터는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에서 로마교도들이 자신을 방어하는 세 가지 담을 지적하였다. 그 중에 두번째가 성서해석자인 교황과 교황 무오설에 대해서 비판한다. 둘째 담은 한층 더 보잘 것 없고 무가치하다. 그들은 비록 그들의 모든 생애 있어서 성서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는 않으나 성서의 유일한 교사는 되려고 한다. 그들은 스스로 유일한 권위자라고 생각하며, 교황은 악인이거나 선인이거나 간에 신앙 문제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되지 못한 거짓말로 우리에게 납득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거기에 대하여 한마디도 증거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렇게도 많은 이단적이고 비 그리스도교적이며 실로 부자연스럽기까지 한 규정들이 교회법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무식하고 사악하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자기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므로 무엇이든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대담하게 포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서는 어디에 필요하고 무엇에 유용하겠는가? 우리는 성서를 불태워 버리고,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로마의 불학무식한 수령들로 만족하자. 물론 성령은 경건한 마음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내 자신이 이것을 읽지 아니했다면 나도 악마가 로마에게 이처럼 서툴게 허세를 부려 도당을 모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⁶⁾ 이처럼 로마교황청은 성경을 벗어나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다. 로마의 교황청이 성경을 버리고, 성경을 자기 구미대로 해석할 때에, 이미 성경의 참뜻은 왜곡되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사회를 보는

5) Gonzales. Justo, 「종교개혁사」, 서영일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2), p. 15.

6) Luther Martin,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논문」, 지원용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4), pp. 30-31.

통찰력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자연히 성경의 궤도를 이탈한 로마 교황청이라는 열차는 부패의 길로 달려갈 수 밖에 없었다. 로마교황청은 성직 매매, 성직자들의 특권, 수도승들의 타락, 특히 고위 성직자들의 사치와 불륜 등을 저지려는 부패의 온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부패의 클라이막스는 면죄부 판매였다. 이에 대해 루터는 면죄부의 효력에 관한 논박 95개조를 발표하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첫 번째 동인은 로마교황청의 성경과의 결별이다.

제2장 르네상스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중세 후기 스콜라주의 운동-중세의 전통적인 스콜라주의 신학의 모든 신학적 진술이 내포하는 보편 개념의 보편적 실재를 거부하였다-과 더불어 1350-1500년 어간에 일어났으며, 이 후자와 마찬가지로 중세 신학을 거부하였다. 이탈리아를 진원지로 하여 1480년대에는 알프스 산을 넘어 이미 유럽에 소개된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희랍.로마 문화의 부흥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자’(ad fontes)를 표어처럼 내세우고, 인간의 존엄성과 탁월성, 교회의 권위로부터 국가의 독립 및 역사의식 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인문주의 운동이 영국에서는 콜레트와 모어에 의해서, 프랑스에서는 르페브르와 뷔데에 의해서, 화란에서는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그리고 독일에서는 로이클린, 아그리콜라, 멜랑히톤에 의해서 수용되었다. 쾰빙글리, 칼빈 등 개혁주의적 종교개혁자들은 르네상스 인문주의 교육을 많이 받았으나 루터는 이러한 교육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스피츠의 독일에의 르네상스 인문주의 전래과정에 의하면 루터보다 한 세대 이전부터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독일에 소개되어 루터가 다니던 에어푸르트대학에 정착했고, 이 대학에서 르네상스를 강의하던 루베아누스가 루터의 친구였으며, 루터가 로마에 갔을 때 인문주의자였던 질레스를 만났다. 루터는 로이클린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그리고 멜랑히톤을 통해서 희랍어를

배웠고, 에라스무스의 희랍어 신약성경을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르네상스의 모토인 'ad fontes'는 희랍.로마의 고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인데 고대 교부신학과 성경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이 일그러뜨린 고전을 되찾자는 것이었다. 즉 루터가 카톨릭의 전통보다 성경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어거스틴 신학에 관심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영향이었다.⁷⁾ 루터는 르네상스의 학문적인 도구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기반을 다졌다. 그런데, 르네상스는 철저히 성경적인 세계관을 거부하는 인본주의 세계관을 주장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종교개혁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무척 아이러니컬하다.

종교개혁의 시대가 16세기라면, 르네상스 시대도 14-16세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도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인문주의자들의 학문적인 도구들을 사용했을 뿐이지, 인문주의의 본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한 시대의 획을 긋는 르네상스의 발흥과 부흥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성경 연구에 많은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으나, 그 본질이 성경적인 토대를 벗어나 성경적인 세계관을 조금씩 갉아먹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의 침투에 대항해서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르네상스는 오직 인간의 존엄성과 무한한 능력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르네상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지성이 모든 영역에서 모든 지식을 갖추고 무한한 존재인 양 활동한다는 인간 이성의 자율성을 주창했다. 그러므로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혹은 더 크게 만들었고 인간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공로를 쌓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르네상스는 이처럼 사회전반에 깊숙이 침투하여 성경적인 세계관을 거부하고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서서히 심어가고 있었다. 르네상스의 도전은 필연적으로 종교개혁을 태동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르네상스의 위협하에서 잉태된 것이다.

7) 이형기, 「전통과 개혁」,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90), p. 19.

제3장 신비주의

사도 시대 이래로 교회를 통하여 줄곧 경험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발견한다. 중세 시대에 이 경험적 전통은 기독교적 삶에 대한 신비적 접근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수도원과 잘 알려져 있는 14, 15세기의 저항 운동에 모두 잘 드러나 있다.⁸⁾ 중세 말에 일어난 이 신비주의 운동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은총의 수단인 7성례전 -영세, 견신례, 혼배성사, 성찬, 고해성사, 서품, 종유성사- 과 계층 질서적 성직 체제를 통한 은총의 매개를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주장하였다. 14세기 독일의 에크하르트(St. Ekkehard)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보로 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 안에 내재하는 신적인 불꽃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주장하는 등 범신론자에게 가까웠다.

이 에크하르트의 전통에 서 있으면서 보다 아퀴나스적이요, 성경적이요, 설교를 중요시하는 타올러의 「설교집」은 초기 루터의 「시편 강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며, 루터가 1516년에 편집 출판한 「독일신학」은 저자 불명의 책이지만 어거스틴의 작품들 다음으로 중요한 작품으로 루터의 「로마서 강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루터 초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신비주의의 요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점차 성숙한 루터에게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없어진다.

루터는 중세 말 가톨릭 교회의 생명력의 고갈에 대한 절규인 신비주의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복음과 성령으로 대답했다.⁹⁾ 이처럼 신비주의는 성경을 벗어난 내면의 직관, 즉 직접적인 체험을 추구했으며, 이러한 사상이 수도원 운동과 결부하여 널리 퍼졌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난 신비주의자들의 도전에 필연적인 응전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8) Stusfler. Ernest, 「경건주의 초기역사」, 송인설·이훈영 역, (서울: 솔로몬, 1993), p. 27.

9) 이형기, op.cit., p. 20.

제3부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적 세계관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는 ‘오직 성경으로만’이다. 교회에, 사회에, 그리고 문화에 밀려든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에 대항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개혁 뿐만 아니라, 사회 제 분야의 개혁에도 앞장 선 인물들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종교개혁은 교회에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한 개혁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은 사회 제 분야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적용하게 된다. 이 2부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의 저서를 중심으로 그들의 사회 제 분야에서의 업적을 연구하고자 한다.

제1장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칼빈 연구가들은 루터와 칼빈을 비교하면서 ‘근대적인 칼빈과 전근대적인 루터’라는 도식을 즐겨 사용했다. 그레이엄(W.Fred Graham)은 “칼빈의 경제 사상을 중세 신학자들 및 루터와 구별시키는 것은 그가 상업을 인정했다는 것이다”¹⁰⁾하고 말함으로써 칼빈과 루터를 구별했다. 그레이엄에 의하면 칼빈은 “물품의 교환은 사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사를 보급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¹¹⁾ 반면에 “루터는...상업에 대해 지속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¹²⁾고 한다. 그리고 트뢰츨취(Ernst Troeltsch)도 루터가 윤리의 이원성, 즉 “개인을 위한 내적 도덕성”과 “외적인 ‘공적’ 도덕성”¹³⁾을 가르침으로써 “세상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과 극복의 문제로 간주되게”¹⁴⁾되었으며, 여기서 세상에 대한 부정인 금욕주의는 더 이상 개인적 성취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삶의 전구조에 스며들어 있어서 최후의 날을 기대하는 일 이외 아무 것도 남

10) W. Fred Graham, p. 78.

11) Ibid.

12) Ibid., p. 79.

13) Ernst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trans, Olive Wyon, 2 vols.(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31), 2 : 508.

14) Ibid., p. 511.

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¹⁵⁾ 요컨대 트뤼취는 루터의 윤리적 가르침은 사회 구조와 제도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근래에 와서 스택하우스(Max Stackhouse)도 루터는 “일차적으로 영적이고 좁은 의미의 교회적인 혁명에 몰두했다. 그는 그의 시대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운동들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았다”¹⁶⁾하고 말했다.

그러나 린드버그(Carter Lindberg)는 최근에 출판한 그의 한 저작에서 트뤼취나 스택하우스의 루터 해석들은 “루터의 신학과 실천에 대한 왜곡들”¹⁷⁾이라고 보았으며, “루터는 사회에 대한 신앙의 신학적 적용의 결정적 역할을 위한 분명한 모형을 제공할 뿐 아니라 좀더 중요하게 성서에서 그 신학의 위치를 정하는 분명한 모형을 제공한다”¹⁸⁾고 말했다. 린드버그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루터가 교육 개혁에서부터 고리대금업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정치적 문제에 관하여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저술을 남겼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520년에 루터가 쓴 [선행론]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살펴보자. 루터는 여기서 우선 중세적인 선행론을 비판했다. “그들은 선행을 너무 좁게 정의함으로써 선행이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만이라고 한다. 그들은 다른 것들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그것들에 중요성을 전혀 두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신앙을 경멸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행해지고 말해지고 생각되어진 모든 것에 의해 섬김을 받는다.”¹⁹⁾하고 루터는 말했다. 그래서 루터는 한 사람이 그의 거래에서 일하고, 걷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의 몸에 영양 공급을 위한 것이나 사회 복지를 위한 온갖 종류의 일들을 하는 것이 다 선행

15) Ibid.

16) Max Stackhouse, *Creeds, Society, and Human Rights : A Study in Three Cultures*(Grand Rapids, Michigan : Eerdmans, 1984), pp. 54-55.

17) Carter Lindberg, *Beyond Charity : Reformation Initiatives for the Poor* (Mineapolis : Fortress Press, 1993), p. 161.

18) Ibid.

19) Luther Martin, *Treatise on Good Works, in Luther's Works*(hereafter LW) 55 vols.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55), 44 : 24.

이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하신다고 했다.²⁰⁾ 즉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뿐만 아니라 앞서도 언급했듯이 성경의 밑받침 위에서 사회의 제 분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저작활동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모습이 목판화로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의 주제는 구약에서 따온 것이지만 장면은 작센을 무대로 삼고 있다. 성벽 재건자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다. 돌, 회반죽, 통나무, 톱, 외바퀴 손수레, 사면, 기중기는 하나같이 비텐베르그의 성벽을 고치는데 사용된 도구들이다.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원리를 사회 개조에 적용하는 방법도 이것과 아주 비슷했다. 종교의 우위성, 그리스도교의 유일한 충속성, 이웃에 대해 그리스도의 노릇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 이러한 것이 그 원리였다. 루터는 파괴하러 나선 사람이 아니라 이루어 놓으려고 온 사람으로서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모든 편견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점을 뚜렷이 밝히려고 애썼다. 루터는 자기보다 앞서 갔던 사람들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고, 교사, 공무원 등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확대했다. 그의 가정윤리는 바울의 이론에 따르는 가장 중심이요, 경제 윤리는 토마스의 이론에 따라 주로 농업중심이요 정치 윤리는 어거스틴에 따라 작은 읍 중심이다. 그렇다면 이제 본고는 루터의 사회개혁을 직업관, 경제관, 정치관(국가관), 교육관, 윤리관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종교개혁의 선봉장인 루터의 개혁은 성경적 세계관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진 교회의 순수성 회복을 위한 영적인 개혁과 더불어 사회의 순수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개혁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루터는 영적인 개혁자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개혁자인 것이다. 이 두가지 중 한가지 면만을 강조한다면 루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20) Ibid.

1) 루터의 직업관

루터는 카톨릭보다 더 보수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수도원 제도를 철폐함으로써 한층 높은 의의 실천장인 하나의 상류 사회를 제거해버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복음의 모범을 보일 곳은 세속적인 직업 밖에 없었다. 다만 루터는 이 직업에 세속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걸 허락지 않았을 따름이다. 그는 모든 신자들이 성직자를 강조했듯이 하늘의 부르심, 소명의 개념도 모든 가치있는 직업에 확대시켰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을 하라고 부르신다. 그는 일상 작업장에서 일하고 계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목공으로서 일하셨다. 하나님, 그리스도, 동정녀,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 목자들이 일했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직업에 따라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구를 통해 자신의 일을 계속 하신다.

젓짜는 소녀와 인분을 퍼 나르는 청소부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카르투시아²¹⁾ 수도사들의 시편 노래보다 더 반기신다. 루터는 이런 저런 이유로 얽잡아보던 직업을 끈질기게 변호했다. 루터는 자신의 사회에 관한 생각의 초점을 직업에 두고 사람들을 그들이 놓여 있는 그 자리에서 대하려 했다. 그러나 모든 직업을 순전히 개인적인 면에서만 다룰 수는 없었으며 그 영역을 더 넓혀야 했다. 루터는 말하기를 “모든 인류는 두 계층으로 나뉜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요 다른 하나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참 신도들은 모두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21) 1084년에 켈른의 브루노가 그랑드 샤르트뤼즈(Grande Chartreuse, 이 지명으로부터 카르투지오회라는 이름이 유래하였다)에서 창설한 카르투지오회는 명상 생활을 특히 강조한다. 처음에는 특별한 수도회칙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회의 관습들을 수집한 세 권의 규율집이 만들어졌다. 수사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물을 탄 포도주만을 마셨으며, 자주 금식하였고, 거친 모직 셔츠를 입는 등 엄격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다. 그들은 침묵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였고 수도원 내에 있는 각자의 방에서 생활하였으며 매일 대여섯 시간을 머리 속을 드리는 기도를 훈련하는 데 바쳤다.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는 평신도 형제들의 공동체가 충족시켜 주었고, 오직 축제일에만 식사시간에 동료 수사들과 만났다. 그러므로 카르투지오회는 이집트 사막의 고행자들의 고독한 생활과 수도원 생활의 규율을 결합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밑에 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속하고 율법아래 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나라 이외에 다른 정부를 이 세상에 세우셨다.”²²⁾ 그런데 루터는 이신칭의는 독신, 명상, 최소한도의 경제생활 등 수도원적인 삶이나 교회 안으로 내향하는 성화의 삶이 아니라 노동, 결혼, 가정, 교육, 국가 사회를 향한 사랑을 요구하는 삶이라고 하였다. 루터에게 있어서는 “구두 수선장이, 대장장이, 농부”가 참된 기독교인일 때 이들의 가치는 잘못된 기독교인인 교황이나 신부보다 훨씬 훌륭한 것이었다. 루터의 직업 윤리야말로 세속적인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인 바 세상을 거부하는 형태의 중세 기독교와는 대조적이었다. 루터의 직업관은 세속적인 직업도 하나님의 소명에 근거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직업관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루터는 직업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조명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중세시대나 로마 카톨릭처럼 성직만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처럼 루터는 종교개혁의 토대인 성경 위에서 직업관을 피력하였다.

2) 루터의 경제관

경제 분야에 있어서 루터는 신학에 있어서와 같은 의미로 보수적이었다. 두 분야에 있어서 그는 당시 교회가 혁신을 가져온 것으로 비난하면서 당대 사람들에게 신약 시대와 중세 초기로 되돌아 갈 것을 호소했다. 당시 새로운 구라과는 야만족의 침입이 있는 뒤 줄곧 농업에 치중해 왔으며 교회는 농업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다음으로 수공업, 맨 마지막이 상업이었다. 이것 역시 루터의 가치관이었다.²³⁾ 루터는 자신의 종교개혁3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경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루터는 먼저

22) Martin Luther, op.cit., Vol 45, p. 88.

23) Bainton H. R, 「마틴루터의 생애」,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2), pp. 248-254.

의복의 사치에 대해서 지적한다. 독일은 매우 많은 귀족들과 부호들이 빈곤하게 되는 의복의 낭비와 사치를 금하는 일반적인 법령과 명령을 크게 필요로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다른 나라들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모든 신분에게 어울리고 훌륭한 의복으로 적합한 양모, 머리털, 아마 및 다른 모든 것을 충분히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단과 비로도와 귀금속 장신구와 다른 외국 물품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거액의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비록 교황이 참을 수 없는 착취로 우리 독일 사람들을 약탈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게는 이러한 국내 강도들인 비단과 비로도 상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나는 믿고 있다. 우리가 아는대로 의복 문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되려고 하며, 또한 당연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서 교만과 질투가 일어나 점점 더해간다. 만일 우리의 호기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또 만족하게 여기게만 한다면 이런 모든 것과 훨씬 더 많은 비참한 일들을 피하게 될 것이다.²⁴⁾ 또 루터는 외화의 유출을 막기위해 조미료 거래의 통제를 주장했다. 이는 루터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주지만, 루터 자신이 사소한 사회의 일부분에까지 간섭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또 루터는 연부금 거래를 신랄하게 공격하며 금지할 것을 주장한다.

루터는 이렇게 주장한다. ...한 도시에는 연부금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백개의 교구령보다 공정한 자유보유 재산이나 세입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한 개의 교구령이 있는 것이 더 낫다....어떻게 단 한 사람의 생애 동안에 군왕에 상당하는 그 큰 재산을 쌓을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질 수 있는가? 나는 수학자가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배 굴덴을 가진 사람이 일년 동안에 20굴덴의 이익을 낼 수 있으며 실로 어떻게 한 굴덴으로 또 한 굴덴을 만들 수가 있는지 내게는 이해되지 않는다....나는 일개 신학자이며, 그 사악하고 거리끼는 외형외에 비난할 만한 아무 것도 찾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악

24) Martin Luther, op.cit., pp. 118,119.

의 모양 혹은 가식을 피하라'고 한다. 우리가 농업을 증강하고 상업을 감소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훨씬 더 기쁘시게 하며 또 성서에 따라서 토지를 갈고 거기서 생계를 구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네가 땅에서 일할 때에 이 땅에 저주를 받았으며 이것이 네게 엉덩퀴와 가시를 낼 것이며,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빵을 먹으리라”고 아담 안에서 우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진 것과 같다. 아직도 경작되지 않은 땅이 많이 있다.²⁵⁾

여기서 루터는 상업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상업을 통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며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의 해악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비판하고, 또 그 당시의 사회상황이 농업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한 듯하다. 또 루터는 과도한 음식의 남용에 대해서 지적한다. ‘저들이 먹고 마시며, 결혼하고 구혼하며, 세우고 심으며, 사고 팔 때에 마지막 날이 숨겨진 덮처럼 올 것이다’고 경고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루터는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 옹호자였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토지 중심이었는가 하는 점은 고리대금에 대한 그의 책 첫 페이지의 만화에서 잘 묘사되고 있다. 거기에 보면 한 농부가 자기가 빌려온 거위 뿐만 아니라 그 알까지 되돌려 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루터는 신명기의 고리대금 금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돈의 무효성 이론을 강조했다. 분명히 루터는 자본주의 정신에 반대했으며 순진스럽게도 물가의 오름을 자본주의자들의 강탈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그와 동시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가 통박했던 여러 가지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수도원 제도의 철폐와 교회 재산의 몰수, 가난을 죄 또는 수치가 아니면 불행으로 날인 짝은 것, 그리고 노동을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찬양한 이 모든 것은 분명히 경제적 기업 정신을 고취시켰다. 그러나 반면에, 루터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농업 위주에서 상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해가는 시대적인 흐름을 읽는 통찰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의 건전한 목적과 수단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농업 위주의 정

25) Ibid., pp. 120,121.

책을 고수하였던 것 같다. 어쨌든 루터가 피력한 이러한 경제관은 화산의 분출처럼 루터에게 뿔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루터는 종교개혁의 토대인 성경적인 세계관 위에서 경제를 바라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경제에 관한 성경적인 참여와 수단을 강구하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3) 루터의 정치관

루터의 제 1관심은 정치가 아니었지만 그가 처한 위치에서는 정치를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상황이 그를 다그칠 때마다 그는 바로 바로 토를 달았다. “황제 샤를르가 루터의 신약성경을 금지했다 - 참을 수 없는 일! 선거후 프리드리히가 루터의 주장과 신변을 옹호했다-받아들일 수 없는 일! 교황제도가 이단적인 통치자들을 폐위시켰다-권리 침해! 교회가 십자군 원정을 조자했다-바로 악마!” 루터는 정부에 대한 이론을 세울 차례가 되자 신학에 있어서처럼, 바울과 어거스틴에게 의존했다. 루터는 기독교의 윤리를 사적인 생활로 국한시키고 정부를 마귀에게 넘겨주었다는 비난을 지금까지 사고 있지만, 올바른 정치를 위하여 성경적인 정치관을 사회에 실행한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²⁶⁾ 또한 루터의 정치관은 국가관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치의 주체가 국가 권력이기 때문에 루터의 정치관은 국가관을 통하여 더욱 명백하게 알 수가 있다.

루터의 국가관은 두 가지 통치질서 즉 두 왕국 이론에 근거해 있다. 루터는 말하기를. “두 권세 혹은 두 통치권, 즉 하나님의 나라와 가이사의 나라, 혹은 영적인 나라와 현실적인 나라는 구분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여기서(마22:15-22) 하듯이 분명하고 간단한 선언으로 구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각 어떻게 구성되고 다스려지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²⁷⁾....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자비의 나라이지 진노와 형벌

26) Bainton. H. R, op.cit., pp. 254-256.

27) Luther Martin, [복음서 설교, 삼위일체주일 후 23번째 주일], 랜커관, 제14권, 27-39장.

의 나라가 아니다. 그 안에는 오직 용서와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과 사랑과 봉사와 선행과 평화와 기쁨 같은 것들만이 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진노와 엄격의 나라이다. 그 안에는 오직 형벌과 억압과 심판과 징계가 있어서 악한 자들을 억제하고 선한 자들을 보호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 나라는 칼을 가지고 있으며 왕이나 통치자들은 성경에서 하나님 진노나 하나님의 막대기(사14장)로 불리어지고 있다.²⁸⁾

이 땅위에서 칼을 사용하는 것은 이 세상의 황제와 왕들과 제후들과 통치자들에게 속해 있고 영적 국가에 결코 속해 있지 않다. 영적 국가의 칼은 철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즉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다²⁹⁾” 그리고 루터는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세우신 이유가 불신자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때문에 통치권을 세우셨다..... 두 종류의 사람들, 즉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정부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에 복종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 때문에 시민정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부, 즉 통치를 위한 칼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인이고 복음을 따른다면 국가의 칼이나 강제력 행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소용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의로우리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통치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통치권을 제정하셨다.³⁰⁾.....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고 법 아래 있다.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악에 대항하지 않고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위해 기독교적 신분과 하나님 나라밖에 하나의 다른 정부를 마련하셨고, 그들을 칼에 복종케 하셔서 그들이 악을 행하고자 할지라도 행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만일 그들이 악을 행한다 해

28) Luther Martin, “농민들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책에 대한 공개 서한”, [루터 전집], 제 4권, p. 265.

29) Luther Martin, “과문에 관하여”, [루터전집], 제2권, p. 38.

30) Luther Martin, [베드로와 유다서 주석], p. 127.

도 두려움도 없이 평화로이, 순조로이 행하지는 못하도록 하셨다.³¹⁾” 또한 루터는 일시적 통치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해야 하는 의무에 관해서 말한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그 자신의 피조물들과 만드신 것들과 제도들을 보존하시며 통치권을 세우시고, 이 통치권에 칼과 법을 위탁해서 그것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정하신 것에 대항하려 하는 모든 사람들,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벌하고 죽일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실 수 없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폭도들의 무질서를 억눌러 그들이 칼과 법에 복종케 하신다.³²⁾” 그리고 루터는 반란의 권리에 대하여 말한다. “여기에 율법이 있어 말하기를 ‘아무도 대 군주에 대항해서 싸우거나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는 대 군주에게 복종과 존경과 두려움의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롬13장)라고 했다....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제정하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종하면서 동시에 저항하고, 그들의 군주에게 복종하면서 동시에 참지 못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반란 중에 있는 농부들은 군주들이 복음이 가르쳐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착취당하도록 하므로 그들은 전복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에 대해 군주들이 비록 이 점에서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복으로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것, 즉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파괴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고 대답해 왔다. 반대로 우리는 불의를 참아야 하고 군주가 복음을 관대히 다루지 않으면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여러분을 이 도시에서 박해하면 다른 도시로 피하십시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이 설교되는 다른 군주국가로 가야 한다.³³⁾.....반란은 유익하지 못한 사건처리 방법이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개혁을 낳지 못한다. 왜냐하면 반란

31) Luther Martin, “세속의 권력 : 어느 정도까지 복종해야 하는가”, [루터 전집], 제3권, pp. 231-250.

32) Luther Martin, “시편 82편 주석”, [루터 전집], 제 4 권, p. 290.

33) Luther Martin, “군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루터 전집], 제5권, pp. 42-49.

은 이성을 결여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죄가 있는 자들보다 무고한 자들을 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반란도 비록 그것이 지닌 관심과 이유가 아무리 좋다 해도 결코 옳을 수 없다.³⁴⁾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의 정부가 정의롭게 행하든지 불의하게 행하든지 그 정부에 대해 반역하는 것은 결코 바른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억압과 불의를, 특히 그의 정부에 의한 것을 견디어야 한다.³⁵⁾.....가끔 일어나는 일처럼 불림을 받은 일시적인 권력과 당국이 신민으로 하여금 하나님 계명들에 위배되도록 행하기를 요구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행하기를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면, 거기서는 순종은 끝이며 의무도 무효화된다. 여기서는 성 베드로가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한 것같이 말해야만 한다.³⁶⁾.....어떤 군주가 불의하다면 그의 백성들은 그때도 그를 따라야만 하는가?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불의를 행하는 것은 누구의 의무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보다는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³⁷⁾“ 이처럼 루터는 국가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성경을 토대로 하여 상세하게 언급하였다. 루터의 국가관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속적인 국가에 대한 통찰력과 분명한 행동지침들을 설정해 준다고 할 수가 있다. 루터의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민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언급하였다는 사실에서 루터의 개혁은 교회개혁과 사회개혁의 양면성을 띄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4)루터의 교육관

루터는 젊은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였다. 루터는 젊은이들이 인문교육을

34) Luther Martin, “모든 기독교인들에 대한 진심어린 권유, 폭동과 반란에 대하여 경고함” [루터 전집], 제3권, p. 211.

35) Luther Martin, [루터 서신], 제2권, 870장, p. 519.

36) Luther Martin, “선행에 관해서”, [루터 전집], 제1권, p. 271.

37) Luther Martin, “세속의 권력 : 어느 정도까지 복종해야 하는가”, [루터 전집], 제3권, p. 270.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학, 인문학, 역사 등을 가르치는 학식 있고 잘 훈련된 남녀 교사들이 있는 학교나 기타 다른 곳에서 교육받고 훈련받는다면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격언들을 듣게 될 것이요, 그들은 여러 도시, 저택, 왕국, 제후, 남자, 여자들과 함께 지내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처음부터 온 세상의 인물, 생애, 충고, 목적, 성공, 실패 등을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자신들 앞에 진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형성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일들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까불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 어떤 즐거운 일들을 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면, 왜 우리는 그들을 학교에 보내어 공부하도록 해서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아이들이 즐겁고 부담없이 어학, 예술, 역사 등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녔던 학교들은 이미 한 시대 전의 것들입니다-우리는 지옥과 연옥을 방불케 하는 곳에서 격변화와 시제 때문에 시달렸으며, 우리가 배운 것이라곤 매질과 두려움과 고통과 불행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카드놀이, 노래, 춤 등을 가르쳐 주는 일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이면서, 그들이 아직 젊고 시간이 있으며 쉽게 배울 수 있는 동안 그들에게 책 읽는 일과 기타 다른 분야들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자녀가 있다면 저는 그들에게 어학, 역사, 노래, 악기, 수학 등을 가르치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이들의 놀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희랍인들은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쳤는데, 이들이 자라서 놀라운 재능을 가진 원숙한 사람들로 성장했습니다. 내가 좀더 많은 시들과 역사서들을 읽지 않고 또 가르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요.”³⁸⁾ 루터는 젊은이들이 소위 세속교육이라고 하는 학문들을 공부할 것을 주장했다. 우리는 루터가 종교개혁자로서 세속학문들을 적대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속학문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루터는 세속학문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

38) Luther Martin,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독일에 있는 모든 도시의 의원들에게”, [루터 전집], 제4권, pp. 106-124.

계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루터는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학교가 교회 다음으로 중요하며 학교는 교회의 보고(conservations)라고 하였다.³⁹⁾ 이처럼 루터는 교육에 대해서도 종교개혁의 정신에 입각하여 개혁 -개혁은 성경적인 방식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한다- 을 주장하였다.

5)루터의 윤리관

루터는 결혼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인 성경의 토대위에서 말하였다. 루터는 결혼의 존귀성에 대해서 제 4 계명을 들어서 말한다. “우리는 이 4계명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결혼보다 더 높은-하나님 자신에 관한 복음 다음에 놓인-직무, 상태, 조건, 그리고 사역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⁴⁰⁾.....아내를 맞는 것은 대단히 쉽지만 그녀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남편이라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당연하다.....‘오 주님, 제가 아내 없이 사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와 더불어 한평생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훌륭하고 경건한 아내를 맞게 하소서.’⁴¹⁾.....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고 기쁘게 하고, 서로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을 때 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서는 안 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지를 누가 가르치겠는가? 오직 신뢰(confidence)가 그들에게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을 가르쳐 준다.⁴²⁾” 그리고 루터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차라리 이중결혼을 택할지언정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였고, 그리스도인 경우에는 이혼은 허용될 수 없음을 강경하게 말하였다.⁴³⁾ 그리고 루터는 창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독신 생활과 그 폐해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또한 루터

39) Luther Martin, [루터와의 대담], p. 96.

40) Luther Martin, “게르만 사회의 기사들에게”, [루터 전집], 제3권, pp. 423.

41) Luther Martin, [루터와의 대담], p. 63.

42) Luther Martin, “선행에 관해서”, [루터 전집], 제1권, p. 191.

43) Luther Martin, [산상보훈에 대한 주석], pp. 169-174.

는 신앙으로부터 나온 일을 강조하면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동시에 강조했다. 루터는 마태복음 7:12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성서가 당신의 일터에, 당신의 손에, 당신의 마음에 두어져 있다. 성서는 당신이 당신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선포한다. 당신의 도구들을 보기만 하라. ...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계속 외치고 있다. ‘친구여, 당신이 당신의 이웃이 그의 소유를 사용해주기 원하는 그대로 당신의 이웃과의 관련 속에서 나를 사용하라’라고”⁴⁴⁾ 말했다. 루터의 이러한 구체적인 사회생활 제 분야에 대한 지적은 루터의 성경적인 세계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제2장 쾰빙글리(Huldrych Zwingli)

1) 쾰빙글리의 경제관

우선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쾰빙글리의 입장을 살펴보자. 그 당시 스위스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경제적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이자와 십일조 제도를 재조정하는 것이 당면 관심사였다. 이자의 문제에 관해서 쾰빙글리는 현금 대여에 대해 5%를 넘지 않는 이자율을 지지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이자는 수입에 의존해 결정할 것을 권면했다 : 수확이 좋지 않을 경우의 위험 부담은 투자자와 자본을 빌린 쪽 양측이 모두 감수해야만 한다. 쾰빙글리는 쾰리히에서의 활동 초기에 이미 십일조 문제에 부딪혔다. 그는 전통적인 십일조 체제를 문제 삼았었다. 교회를 비판하는 쾰빙글리의 설교의 영향 하에 회중은 이미 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교회 당국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현금을 교회 당국자들의 의존성과 또한 이들의 자율성에 대한 제한으로 여기고 있었다. 회중은 지역 공동체가 돈을 수탈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이 십일조의 폐지에 대한 요구가 자치 지역 정부 수립에 대한 요구와-지역 회중에 의한 목사의 선출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맞물려 있는 이유였다. 당연히 회중은 선출한

44) Luther Martin, *The Sermon on the Mount*(Matt. 7:12), in *LW* 21 : 237.

목사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어야만 했다. 이렇게 하여 십일조 폐지를 위한 회중의 싸움은 도시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려는 시골 지역 회중의 해방이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십일조 문제는 교회에 대한 기부 문제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급진주의자들의 십일조 제도의 폐지 주장에 맞서서 썬빙글리는 십일조의 본래 목적을-가난한 자들에 대한 지원과 설교자들에 대한 사례-다시 찾기 위하여 점진적이고 차근차근한 조치를 취할 것을 옹호했다. 평신도에게 부과된 십일조를 해제해 주고자 노력해야만 한다 : 사업단과 수도원에 부과된 십일조 의무는 쥘리히의 경우에서 증명되듯 이러한 기관들이 점차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썬빙글리는 비록 십일조의 상대적 권리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는 매점(monopoly), 돈놀이, 통화의 평가절하와 같은 경제적 관행들을 가차없이 정죄했다. 이것은 동시대의 다른 비판가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⁴⁵⁾

2) 썬빙글리의 사회관

썬빙글리는 사회 복지 정책에 관여했다. 그는 이미 초기부터 탁발 수도사들을 혹평하고 이들의 빈곤을 위선이라고 불렀다. 그는 탁발 수도사들을 해체하고, 참으로 가난한 자들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두 이념들은 수도원들을 병원과 복지 기관들로 바꾸고, 수도원의 재산을 복지 기금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그의 프로그램 속에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안들은 전반적으로 종교 개혁에 공통적인 요소였다.⁴⁶⁾ 썬빙글리의 사회개혁의 의지는 법조계 분야에서도 이루어진다. 주교 법정으로부터 쥘리히가 이탈함에 있어서 중요한 한 걸음은 종교 개혁 이전 쥘리히와 주교 사이에 논쟁의 핵심을 이루었던 가정 법원에 관한 사법적 문제들의 해결이었다. 썬빙글리와 가정 문제 분야에 있어서 주교의 위임을 받은 하인리히 우팅거를 포

45) Gavler Ulrich, 「썬빙글리 그의 생애와 사역」,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93), pp. 107,108.

46) Ibid., p. 111.

함하는 예비 조언 위원회는 가정 법원에 새로운 법적 절차를 제안하였으며, 이것은 1525년 5월 10일 법으로 공포되었다.⁴⁷⁾ 이 법령의 어떤 부분을 쾰빙글리가 작성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쾰빙글리는 단지 제한된 의미에서만 이 법령의 작성자라고 여겨질 수 있다. 이 법령에 뒤이어 나중에 1530년 8월 23일의 대명령에 포함될 일련의 부가적인 규정들과 조치들이 뒤따랐다. 기존의 관습과 대조적으로 이 새로운 법령은 물론 결혼법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버렸다. 주교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었다. 4명의 세속 인사와 3명의 성직자들이 가정 법원의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성직자들은 교회 법률가인 하인리히 엔겔하르트, 시민 사제 유틀, 그리고 주교가 위임한 우팅거였다. 쾰빙글리는 가정 법원의 일상적인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지만, 자주 증인이나 전문적인 조언자로 법원의 소환을 받았다. 법적 규범을 확립함에 있어서 성서적 모델이 도출되었다.⁴⁸⁾ 이처럼 쾰빙글리는 경제, 법조계 분야 등 사회 제 분야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스위스 쾰리히에서의 종교개혁도 필연적으로 사회개혁으로 그 걸음마를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제3장 존 칼빈(John Calvin)

칼빈은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지만, 경제와 사회 각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와 개혁을 주장하였는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만 한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효과는 ‘오직 성경으로만’이라는 사상 위에서 교회와 영적인 분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 사회 제 분야에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칼빈은 루터와 비슷한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말하나 루터보다 더 적극적인 사회윤리를 말한다. 쾰빙글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섭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서의 권위를 강조한 데 이어 그리고 부처(M.Bucer)의 [그리스도의 왕국]에 이어 칼빈은 은혜

47) *Zwingliana opera* Vol Z: 210-248. 1522년 7월 13일.

48) Ulrich Gabler, p. 117.

와 신앙으로 구원을 얻은 기독교인들의 성화가 역사와 사회, 국가와 문화 속에서 강하게 실현될 것을 주장하였다. 교회가 국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칼빈의 주장은 제네바에서 거의 이루어졌고 프랑스의 개혁주의 교회를 통하여 실현되었으며 영국 퓨리탄의 투쟁의 역사와 미국 뉴잉글랜드의 퓨리탄 역사를 통하여 실현되었으니 이들은 교회의 국가 권력에의 예속을 거부하였고 세속 역사속에서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였다. 이들 칼빈 신학 계통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믿었고 성서의 요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신학을 주장하므로 역사와 사회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이었다.⁴⁹⁾ 칼빈의 이러한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칼빈의 경제관, 교육관, 문화관을 살펴보도록 하자.

1)칼빈의 경제관

칼빈은 유럽 사회가 중세 장원제 사회에서 근대 산업 사회로 변화되던 시기에 나타나서 루터처럼 제후 중심의 장원제 사회를 회복하려고 하거나 일부 공산주의적 재세례파처럼 농민 중심의 농민 공동체를 결성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고 제3의 길을 모색했다. 그것은 도래해오는 산업 사회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 산업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제시한 것이다.⁵⁰⁾ 이처럼 칼빈은 현재의 사회의 상황과 다가올 사회의 상황과 변화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 위에서 개혁을 실행해 나갔다. 그 당시의 사회에서 루터가 무역 상사들로 뒤덮여 있는 그 당시 생활의 모든 분야를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탐욕과 범죄만이 가득한 지옥’⁵¹⁾ 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가 보기에 모든 상인은 언제나 사기꾼들이었다. 16세기에 세계 무역은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무역 항로의 개통으로 엄청나게 성장하였다. 금의 공급이 증가하고 조폐소가 늘어남

49) 이형기, op, cit., pp. 316-317.

50) 이양호, "칼빈의 경제사상" 「신학논단」, 1992. 8, p. 119.

51) *Luther's Work.*, Vol. 45, p. 270.

에 따라 통화의 팽창이 만연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무역은 빈민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다. 목사들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무역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문제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영국의 경우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양 진영의 설교자들이 자신들의 설교를 통해서 부정한 상거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실제로 폭로하면서 상인들을 호되게 비난하였다.⁵²⁾

종종 교회의 좌석에서 이러한 비난을 끈기있게 듣던 상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이제 점차 사회적으로 안락한 지위를 누려가고 있는 소수 상류 계급의 보수적인 속물근성 탓으로 돌려버렸다.⁵³⁾ 이러한 상황에서 칼빈은 건전한 상거래 조성을 위하여 노력했다. 칼빈도 당시 상인이 점차 귀족을 대신하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당시의 다른 많은 설교자들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확립된 상업 체계의 용납하기 어려운 면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그는 상인의 인생을 묘사하기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직껏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기발한 책략과 속임수와 교활함들로 충만한 매춘부의 인생과 매우 닮았다고 하였다.⁵⁴⁾ 하지만 그는 16세기에 이상적인 원시 농업사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날 수 없었음을 알았다.

그는 무역이 인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발전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심했다.⁵⁵⁾ 그가 무역과 관련하여 이처럼 의외의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의 확신 때문이었다. 또한 칼빈은 사유 재산 제도를 옹호했다. 칼빈은 사유 재산 제도는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라고 주장했다. “각 개인이 자기의 사유 재산을 소유하도록 허락하는 시민적 질서가 문란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재산의 소유권이 인간들 사이에서 구별되고 개인적인 되는 것은 인간들 사이

52) J. WW. Blench, *Preaching in England*, (Oxford, 1964), pp. 133,244,270.

MacLure, *St.Paul's Cross Sermons 1534-1642*, Tronto, 1958, p. 123.

53) H. Holborn, *Ulrich von Hutten and the German Reformation*, New York, 1965, p. 45.

54) Calvin. John, *Commentary on Ezekiel.*, 23:17.

55) R. H. 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Penguin Books. p. 92.

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⁵⁶⁾고 칼빈은 말했다. 그리고 칼빈은 사유재산제도를 옹호함과 동시에 상공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칼빈은 상공업도 하나님이 정한 천부직 직업으로 보았으며 상인들의 매매 활동이 건전한 사회 생활에 있어서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상업의 거래 없이 공적 정부가 지탱할 수 없다”⁵⁷⁾고 칼빈은 말했다.

칼빈 이전 수세기 동안 교회와 대부분의 다른 권세자들은 고리 대금업을 정죄하는 성경 말씀을 무역의 관례에도 똑같이 적용하였으며, 이자놀이를 금하였다. 칼빈은 고리대금업에 대한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 이의를 제기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는 고리대금업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시대적 배경과 16세기의 상황은 사실상 동일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무역을 함에 있어서 자본이 거의 필요치 않았으며 본문의 문맥을 통해 볼 때 이자놀이란 말은 단순히 궁핍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고리대금업이 금지된 경우는 단지 구제와 소비를 위해 사용된 비수익성 이자놀이와 관련된 경우였다. 하지만 16세기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이자놀이는 이와는 전혀 다른 형태였다. 16세기의 이자놀이는 차용인이 그 돈을 자신의 회사나 무역 거래에 사용함으로써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수익성 대여였다. 칼빈은 성경에 고리대금업을 금한다는 어떠한 암시도 나타나 있지 않음을 주장했다. 칼빈은 성경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은 가난한 자들이 소비 자금으로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받지 말라고 한 것이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에 대해서까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칼빈은 시간을 아껴 일할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검소하고 절약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검소한 생활과 절제를 요구하며 무절제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금한다고 말했다.⁵⁸⁾ 계속해서 칼

56) Calvin,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New York: The Westminster Press, 1986), IV- I -3.

57) Calvin, *Commentary on Isaiah*. 24:2.

58) John Calvin, *Commentary on II corinthian*. 8:15.

빈은 노동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노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 행위라고 보았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고 보았다.⁵⁹⁾ 그러므로 노동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칼빈은 일자리를 빼앗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칼빈은 제네바 시당국이 사업을 벌여서라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권면했다.⁶⁰⁾ 계속해서 칼빈은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하나님이 피고용자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부여한 것을 자기가 전달해 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그것은 피고용자의 몫을 약탈하는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는 행위라고 말하면서 임금지급의 정당성과 임금 체불과 일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고용주에 대한 경고를 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상업 활동을 인정했지만, 부정직한 계약, 불량한 계량 기구, 매점, 매석, 독점, 폭리 등을 신랄히 비판했다. 또한 칼빈은 교회에 집사 제도를 둬으로써 집사들을 중심으로 불우한 자들을 위해 물질을 거두고, 병자를 간호하고 불우한 자들을 위한 구제 활동을 하는 등 복지 활동을 하도록 했다.⁶¹⁾ 물론 칼빈은 루터와 몇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반되었지만 어쨌든 성경적인 세계관내에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경제문제에 적극 뛰어든 점은 루터나 칼빈이나 동일하다.

2) 칼빈의 교육관

또한 칼빈은 교육에도 관여하였다.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서게 한 후에 칼빈은 대학을 설립하는 일에 주의를 돌렸다. 루터나 멜랑히톤처럼 그 역시 개혁가로서의 사역초기부터, 아이들에 대한 학교 교육과 교리 문답 교육에 관심을 갖

59) W.f.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John Knox Press, 1978), p. 81.

60) 「신학논단」, 1992년 8월호.

61) *Calvini opera*. 10:23.

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신앙의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 반드시 배워야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칼빈은 1538년에서 1541년까지 스트라스부르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곳은 학교 교육을 최우선으로 간주하였으며 또한 당대의 가장 유능한 교육 전문가들이 사역하고 있었다. 1541년 제네바로 돌아온 그는 보다 원대한 계획을 품고 교회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치리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교회법에는 기존의 학교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견해뿐 아니라, ‘아이들을 준비시키기’위해 그리고 ‘목사와 시 당국자들’을 위해 ‘대학’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학부 과정을 갖춘 완전한 종합 대학을 세우겠다는 자신의 목표를 실현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교육 수준만은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리고 칼빈의 교육에 대한 실천적인 공헌은 교육이 이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값싸고 의무적인 것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16세기 제네바에서는 최소한 교육의 숲을 피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기회가 되었을 때 고등 교육이 소개되고 몽테르가 보여주었듯이, 이의가 없이 강압적인 시의회는 언제나 근근히 균형을 이루었던 예산에서 교육에 자금을 지원하는 어려운 일을 수행했다. 이 경비는 때로는 단지 이자만을 갚을 따름인 만성 채무를 갚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에 가중되었다. 교육 그 자체는 인문주의적이요, 그리스도교적 이었으며 영속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삼국, 스코틀랜드 및 영국 등지에서 유학을 와서 그 학교에 출석했고, 그들 나라에 돌아가 교회 개혁과 정치적 혁명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⁶²⁾ 이처럼 칼빈은 교육분야에도 적극 관여했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은 교회에서부터 학교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62) Graham. F,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김영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pp. 228-229.

3) 칼빈의 문화관

이제 학예(학술과 공예)에 대한 칼빈의 의견을 알아보자. 타락의 결과 인간은 자신의 모든 ‘영적인 은사들’을 빼앗겼다. 인간은 칼빈이 말한 소위 ‘하늘의 일’을 이해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진정한 공의 그리고 내세의 행복에 대한 순수한 지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늘의 일’에 무지한 철학자들은 누구나 ‘두더지보다 더 눈먼 장님’일 뿐이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의 결과 자신의 ‘자연적인 은사들’(natural gifts)마저 박탈당하지는 않았다. ‘땅의 일’(정치와 경제와 모든 기계 공작 기술과 문예 등)을 다루는 인간의 능력은 단지 부분적으로 손상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타고난 본능에 의하여 여전히 정치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도덕적 분별력도 지니고 있다. 사회 질서의 씨앗은 모든 사람 속에 심어져 있으며, 질서 정연한 사회 생활에 필요한 이성의 빛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이 정치와 예술 그리고 과학에서 이룩한 업적에 대한 역사를 읽는 자는 누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⁶³⁾ 칼빈은 학예는 그 자체의 번영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부여하신 위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칼빈에게 있어서 이것은 학예가 주로 세속영역에 국한되어 사용될 것이며, 학예의 참된 가치는 이러한 세속 영역에서 충분히 드러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는 교회가 인간의 문화를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그는 교회가 이러한 은사들을 특별히 교회 건축이나 예배 의식 등에 사용함으로써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예술, 음악 그리고 조각 등은, 비록 제한된 방식이긴 하지만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미래의 삶을 지향하게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칼빈은 르네상스 인문주의 그 자체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과 인문주의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기반위에 정초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63) Calvin,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2:2:13,15.

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출판함으로써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었고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한 후 신학자로서 기독교강요를 집필할 때도 계속 고대 철학자들의 문헌을 자주 인용했다.⁶⁴⁾ 이러한 경향은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현금에 이르기까지 진리를 손상시키지 않는한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학술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기독교 신학자들의 경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칼빈이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가 그들의 철학사상에 본질적으로 동화되어서가 아니라 단지 복음의 진리를 동시대의 지식인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⁶⁵⁾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과 일반적 고전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를 읽으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작품도 읽으라. 그러면 그대 스스로가 고전을 사랑하고 즐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깊게 그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며 그 말씀이 그대의 가슴속에 스며들어 그대의 매우 좁은 식견을 시정해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깊은 감명은 고전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⁶⁶⁾

칼빈은 성경의 독자적 권위를 철저히 강조했다. 그럼에도 그는 고전의 가치와 일반적 지식의 효능에 대하여 무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고전을 신이 주신 탁월한 선물이라고 찬양했던 것이다.⁶⁷⁾ 칼빈은 루터와는 다르게 광의의 인문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속적 인문주의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기독교 인문주의자, 또는 성경적 인문주의라고 해야 할 것이다.⁶⁸⁾ 칼빈은 인문주의적 교양과 지식을 체득했지만 결코 그것만을 숭상하지 않았다. 그는 철학을 배웠지만 그것에 얽매이거나

64) 홍치모, 복구르네상스와 종교개혁(서울: 성광문화사, 1984), p. 139.

65) 홍치모, p. 140.

6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E/T. H.Beveridge, London ; 1962) Vol. I. p. 75.

67) Ibid., pp. 75-81.

68) 홍치모, p. 142.

동화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하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독보적인 존재였던 것이다.⁶⁹⁾ 결론적으로 칼빈은 제네바에 소위 ‘기독교 문화’를 도입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칼빈은 개개인의 마음과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제 그가 기독교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소위 ‘기독교적’세계관이라 할 만한 새로운 관점을 나타낼 수 있음을 분명히 믿었다. 게다가 그는 제네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범주의 인간사와 세속적인 일들은, 그 허약성과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 성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강력하게 침투되고 침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은총의 세계는 자연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제네바의 세속적 삶은 교회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에 의해 지배되고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제네바가 더 이상 신약성경에 수차례 경고되어 있는 대로 ‘세상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 만큼 변화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결코 인정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분명한 것은 그가 제네바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썼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와 같이 지역 사회에서 풍성하고 다양한 삶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건전한 교회를 보기 원했다. 그는 기독교 국가에서 참으로 ‘인간다운’문화와 ‘인간다운’사회를 이룩하려 하였다.⁷⁰⁾

칼빈은 비록 자기가 거주하는 소도시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는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교회 개혁을 통한 필연적인 사회 개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비엘러와 그레이엄은 칼빈주의의 정신은 자본주의의 정신과 다르며 오히려 칼빈주의는 기독교 사회주의적 면을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차원에서 옳다고 인정된다. 칼빈은 경제, 교육, 문화, 법 등 사

69) 이창근, 「한국사회와 종교」 (도서출판 엘멘, 1990), pp. 173-174.

70) Wallace. S. R, 「칼빈의 사회 개혁사상」, 박성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pp.157-179.

회 제 분야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바로 ‘오직 성경’만이 교회와 인간의 삶의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다.

제4장 존 녹스(John Knox)

1) 존 녹스와 칼빈

녹스가 칼빈⁷¹⁾을 만난 것은 1554년 3월경 영국의 메리여왕이 등극한 후 신교에 대한 박해를 피해 제네바로 망명했을 때였다. 녹스는 제네바의 영국 피난민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 교회는 칼빈이 시무하고 있던 St. Peter 교회 옆에 붙어 있는 부속건물이었다. 칼빈과 녹스는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었으며, 영향을 받게 되는 시기였다.

녹스가 스코틀랜드의 성 앤드류성에서 목회를 할 때는 위셔트의 영향으로 썬빙글리의 개혁사상에 가까운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녹스가 제네바에 이르기 전에 칼빈의 사상을 수용한 흔적은 여러 가지가 있다. 녹스가 영국에 체류했던 1550년에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읽은 것이 확실하며⁷²⁾, 또 칼빈이 쓴 예레미야서 주석을 녹스가 1549년에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녹스는 칼빈이 작성한 예배모범서(Forne des Prieres)에 의거하여 The Form of Prayer and Ministration of the Sacrament를 작성하여 예배의 모범서로 사용하였다. 녹스는 1555년부터 1558년 영국의 피난민교회 교인들이 영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칼빈과 밀접한 교분을 나누었다. 녹스는 1559년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도 1564년 칼빈이 죽을 때까지 서신교환을 계속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칼빈의 후계자 배자하고도 1572년 녹스가 죽을 때까지 계속 서신교환을 했다.

녹스와 칼빈은 이와 같이 교분을 가지며 많은 부분에서 녹스가 칼빈의 신학을 받

71) 녹스는 칼빈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도구’라고 불렀을 만큼 그의 사상과 신학에 빠져 들었다.

72) 홍치모, 「칼빈과 녹스」, (서울: 성광문화사, 1984), p. 155.

아 들었지만 반드시 칼빈과 모든 면에서 일치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극적인 예가 1558년 녹스가 발표한 「여인들의 기괴한 통치에 반대하는 첫 번째 나팔 소리(The First Blast of the Trumpet against the Monstrous Regiment of Women)에서 나타나는 녹스의 여성통치 반대 사상이다.⁷³⁾ 녹스와 칼빈의 사상 중 달라 보이는 것은 두 사람이 처한 환경이 상이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녹스와 칼빈은 세 가지 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즉, 두 사람 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는 점, 두 사람 모두 강한 신념의 소유자였다는 점, 그리고 개혁주의의 지도자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칼빈이 개혁주의의 한 이론적인 사상을 형성 시킨데 반해 녹스는 칼빈의 이론을 실현시켰다. 녹스를 과격한 칼빈주의자, 혹은 급격한 칼빈주의자로 부르는 것은 칼빈이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그의 사상을 시험하고 적용시키고 있었던데 반해서 녹스는 스코틀랜드라는 나라 전체를 개혁시키는 과업을 수행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녹스는 단지 12인에 불과한 개혁동지를 가지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모범적으로 완수한 것이다.

2) 존 녹스의 신학 사상

녹스의 신학적 사상은 대부분 칼빈의 영향⁷⁴⁾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녹스는 칼빈의 사상 중 계약사상을 단지 신학적 교리에서 정치적 이념으로 발전시켰다. 녹스는

73) 이 나팔소리는 영국의 메리여왕의 신교 억압정책에 의해 망명한 녹스가 영국의 메리(Mary of Tudor), 프랑스의 캐서린(Catherine de Medici),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섭정 메리(Mary of Guise; 로레인의 메리라고도 불리워 짐) 등 세 명의 여성 통치자들이 카톨릭을 신봉하고 개혁주의자들을 박해하는 것에 반대하여 작성된 문서로 녹스가 여성 통치 전반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후에 녹스는 엘리자베스가 영국의 여왕으로 취임하자 나팔소리 2탄을 취소하였으며, 엘리자베스에게 여러 번 사절을 보내어 그 녀의 도움으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성공시켰던 것과, 스코틀랜드의 메리여왕(Mary of Scot)이 돌아오자 그녀의 카톨릭 신봉의 신앙만을 문제로 삼았을 뿐 전반적으로 통치행위 대해서는 신하의 예로 대했음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74) 녹스는 칼빈주의의 전반적인 교리를 참으로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 들였으며, 후에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조직한 교회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후세 사람에게 의해서 첨가된 모든 의식과 이념)들을 완전히 거부하고 초대교회로의 복귀를 꿈꾸었다.

구약성경의 여러 부분을 응용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적 관계를 하나님과 스코틀랜드의 계약적 관계로 대체 시켰다. 그는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스코틀랜드는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국가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국가 구성원 모두는 왕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여야 되며, 만약 하나님께 불충하면 백성은 물론 왕도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으로는 군주가 하나님께 불충하면 백성이 군주에게 불복종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메리(Mary of Scot)가 계속하여 카톨릭을 옹호하고 또 부군의 살해를 교사하고 간통하는 등 사생활이 문란해지자 녹스는 1564년 총회에서 메리를 축출하고 처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께 충성은 의심할 여지없이 개혁종교를 의미했다.⁷⁵⁾ 녹스의 사상은 후에 영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웨스터민스터의회(1642-48)의 서류에 표현되었다. 이 계약사상은 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⁷⁶⁾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헌법에도 영향을 미쳤다.⁷⁷⁾

계약국가에 대한 녹스의 사상에서 통치자나 개인 혹은 국회나 의회에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어떠한 정부에 대하여서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본다. 그의 바램은 한국가가, 지배자와 국민들 모두를 포함해서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며, 구성원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인식 여부를 떠나 그들이 하나님과 계약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국민들은 그들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통치자에게 복종하고 통치자는 국민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통치를 해야하는 계약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국가(통치자와 국민)가 진실된 신앙적 복종을 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

75) 녹스의 환경에서 카톨릭은 형식과 교리에 얽매이고 여러 가지 성상과 성화를 숭배하며, 마리아와 교황을 숭배하는 등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다.

76) Erskine, T. Gillespie, T. Chalmers 등

77) 미국헌법은 스코틀랜드 목사이며 프린스턴대학의 총장이며 제헌의회 의원이었던 John Witherspoon에 의해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는 계약사상에 기초한 구절을 서문으로 하고 있다.

하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에 입각해서 퇴진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3) 존 녹스의 사회개혁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는 과감하게 정부의 불의에 대항하여 기치를 든 신앙인이었다. 그가 생명을 내놓고 카톨릭과 국가의 불의에 대항한 것은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교회개혁과 이로 인한 사회개혁의 열망이었다. 존 녹스가 국가의 불의에 대항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면, 그는 에든버러 근처의 성 앤드류 대학교에서 공부한 후에 윌리엄 틴데일이 처형된 해인 1536년에 사제직에 임명되었다. 에든버러 지역은 후에 사무엘 러드포드(Samuel Rutherford)가 목회한 곳이다. 녹스는 또한 법률가였으며, 정열적인 복음주의자 조지 위샤트(George Wishart)의 수행원이기도 하였다. 바로 그 얼마 후에 녹스는 목회의 소명을 받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로마 카톨릭은 스코틀랜드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녹스의 비난은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다. 녹스는 주일날 설교하지 못하도록 금지당하였다. 주일날에는 사제들이 예배를 인도하였다. 녹스는 평일에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통하여 주일날 다른 사람들이 행한 설교를 논박하였다. 그의 노력은 아주 성공적이어서, 에든버러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녹스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개신교 신앙을 공공연하게 고백하게 되었다. 1547년 6월 30일, 영국과의 전쟁 속에서 녹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프랑스 군에 체포되었다. 비록 그것은 재난이었지만, 스코틀랜드 정부에 체포되었다면 당하게 되었을 결과보다는 나았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틀림없이 화형을 당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의 2년 동안 갇혀있는 노릇은 노예로 있다가 녹스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1549년 영국에 망명자로 상륙해서 다시 설교를 시작했다. 그의 사역은 매우 큰 효과를 거두었고 그의 사역을 전해들은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가족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선을 넘어서 영국의 베릭(Berwick)에 정착하여 그의 곁에 있게 되었다.

영국 국왕이 개신교의 편에 계속 남아 있도록 하는 시도들이 실패하고, 1553년 8

월에 로마 카톨릭 교도인 튜더 왕조의 메리 여왕이 런던에 입성하였다. 공공연히 개신교 신앙을 고백한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투옥되었다. 녹스는 영국에서 탈출하여 스위스의 제네바로 갈 수 있었다. 녹스가 폭군에 대한 저항의 신학을 발전시킨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그는 영국으로 몰래 팜플릿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1554년 7월에 출판된 영국에 대한 경고(Admonition to England)였다. 이런 움직임을 통하여 그는 이전에 어떤 개혁자도 들어간 적이 없는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여 놓았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수만 명의 위그노들이 프랑스 정부에 대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녹스가 죽던 해에는 성공적인 반란이 시작되어 네덜란드가 구원되었다. 녹스는 그의 영국에 대한 경고로 세상에 충격을 주었으나, 또한 설득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제스퍼 리드리(Jasper Ridley)는 존 녹스라는 책에서, ‘혁명의 정당성 이론은 신학사상, 그리고 정치사상에 대한 녹스의 특별한 공헌이다’고 쓰고 있다.⁷⁸⁾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이 반란권을 지배자들에게만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녹스는 한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국가의 관리들이 성경과 반대되게 통치할 때에 불복종하고 반란을 일으킬 권리와 의무를 평민들이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될 것이다. 녹스는 시민정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시민정부가 하나님에 의하여 수립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녹스는 국가의 관리들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러므로 국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권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제한된다. 지배자는 자기 자신을 자기를 지켜주시는 분의 대리자라고 간주해야 한다. 그들의 모든 생활과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⁷⁹⁾고 녹스는 강조한다.

마침내 녹스는 1559년 5월 2일에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갔다. 그곳의 장로교회

78) Jasper Ridley, John Knox,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8), p. 171.

79) John Knox, *Works*, (New York: AMS Press, Vol. vi, 1968), pp. 236-238.

조직은 매우 체계적이어서 그 다음 세기에 있었던 박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고 종교개혁이 계속될 수 있었다. 후일에 사무엘 러드포드와 같은 이들에 의하여 자라나게 된, 폭군에 대항한 경건한 저항 이론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존 녹스였다.⁸⁰⁾ 이처럼 존 녹스는 성경의 토대 위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의 불의에 대항한 인물이었다. 물론 당시는 국가와 종교의 이권이 복잡하게 혼합되어져서 서로의 이권을 도모하는 상황이었지만, 녹스는 적극적으로 국가와 종교의 불의와 부당한 권력에 대항했다는 사실에서 종교개혁은 필히 사회개혁을 잉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80) Schaeffer. F, 「기독교 사회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pp. 726-728.

제 4 부 결 론

위에서 본고는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을 통한 사회개혁을 연구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토대위에서 개혁을 이룬 교회개혁과 더불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토대위에서 동일하게 사회개혁을 주장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의 사회개혁사상을 고찰함으로써 사회개혁의 정당성과 종교개혁자들의 업적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종교개혁의 본질은 교회개혁에 있었으나, 그 본질의 토대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토대 위에서 사회를 바라볼 때 사회 제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개혁의 필연성이 도출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 종교개혁자들과 동일선상에 서 있는 두 인물들을 다루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성경의 토대 위에서 사회개혁의 필연성과 정당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두 사람은 성경의 토대 위에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사회를 바라보고 사회의 개혁에 앞장섰다는 차원에서 종교개혁자들과의 연속선상에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신앙이라는 터 위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사회의 부당함과 불의에 맞서서 싸운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다. 물론 종교개혁의 첫번째 유산은 말씀을 통한 교회의 순수성 회복이다. 그러나, 교회의 순수성 회복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순수성 회복으로 나아간다. 킹 목사는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자신이 처한 사회의 부당한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성경적인 투쟁을 시작했다. 사회를 성경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의 왜곡되고 비뚤어진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 것은 종교개혁자의 피가 킹 목사의 내면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킹 목사는 의도적으로 그의 신앙을 사회개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성경적인 세계관이 사회의 불의와 악에 대처하는 기독교적인 삶을 이끌어 내었음을 볼 수가 있다.

종교개혁자들의 사회개혁도 신앙의 개혁과 성경의 토대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한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는 누구라도 말씀을 통한 사회의 개혁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의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프리즘으로 교회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프리즘으로 사회를 볼 때 사회의 개혁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킹 목사의 설교 중 한 부분을 소개한다 :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들을 위하여 자유롭게 하십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앙에 의해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가 옵니다.⁸¹⁾

이처럼 킹은 기독교의 기본신앙과 영성훈련은 사회개혁의 무궁한 자원과 원동력과 불가분리의 관계임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흑인 인권운동가로서 사회참여의 선봉장이었던 킹 목사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서의 영성적 차원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그의 인권운동에 대한 투신을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그의 과단성은 그의 기도의 깊이에서 나왔던 것이며, 시위의 모임은 그에게 있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반하에 있었다.⁸²⁾ 이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 버밍햄에서의 시위의 참가자들이 한 10대 계명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는 내 인격과 몸을 비폭력운동에 바칩니다. 나는 다음 10대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1. 매일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생각한다.
2. 버밍햄에서 비폭력운동은 백인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정의와 화해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3.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정신에서 행동하고 말한다.
4. 하나님이 우리들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만드는 도구로 써달라고 매일 그에게 기도한다.
5.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 개인적 소원들을 희생한다.
6. 친구나 적을 대할 때 겸손의 계율을 지킨다.
7.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전력한다.
8. 주먹, 언어, 마음 속의 폭력을 금한다.
9. 정신적 육체의 건강 가운데 살도록 노력한다.
10. 시위에서 지도자의 지시를 따른다.

81) Martin Luther King Jr, 「사랑의 힘」, p. 178.

82) 손규태, 「혁명적 신앙인들」,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p. 61.

나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또 결연히 그리고 확고한 의지로 참아 나가기로 작정하고 여기에 서명합니다.⁸³⁾

이와 같은 킹의 비폭력의 논리는 십자가의 논리 위에 있다. 그것은 사랑의 강제이다. 스스로 자발적이며 공개적으로 고난당함을 통하여 상대의 양심에 호소하고 설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가페로서의 고난이 비폭력 저항의 중심에 있으며 그것은 더 나아가 구속적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비폭력 저항은 십자가의 논리, 곧 자기 희생의 논리에 서 있는 것이다. 킹 목사의 이러한 자기 부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개혁은 성경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킹 목사의 이러한 행동들은 종교개혁의 모토인 “Sola Scriptura”를 연상하게 한다. 킹 목사는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프리즘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 그리고 자기의 삶 자체를 철새없이 들여다 보는 종교개혁자의 후손이다.

킹 목사는 성경의 토대위에서 비폭력운동 참여자에 대한 영적 훈련 및 반성적 참여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킹의 운동은 일종의 회개운동이었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으며, 그의 집회는 예배였고, 그 운동에의 지원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그의 아내 코레타 스코트 킹은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행동으로 사랑하자.....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을 통합하고, 더 중요한 것은 현실과 이상을 결합시켜야 한다.....악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은 심오한 내적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⁸⁴⁾ 또 킹이 1968년 2월4일 아틀란타에 있는 에베네즈 침례교회에서 행한 마가복음 10:35-45을 본문으로 한 설교의 결론을 들어보자

...때때로 나는 내 자신의 죽음과 장례식을 생각합니다. ...때때로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무어라고 말하게 될까 하고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고 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또 마틴 루터 킹은 사랑을 실천하려 했다는 말을 나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장례식 날에 전쟁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올바른 편에 서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그날 내가 굶주린 사

83) Ibid., p. 65.

84) 노영상, op.cit, pp. 99,100.

람들에게 음식을 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내가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그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 주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그날 내가 인류를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봉사하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군악대의 악장처럼 앞서 갔다고 말하기를 원하면 그대들은 내가 정의 를 위한 악장이었다고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평화와 공평의 악장이었다고 말입니다...⁸⁵⁾ 또한 킹은 교회의 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 또한 이 위기에 처하여 역사적인 사명을 걸머지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인종문제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이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거너 마이어달(Gunner Myrdal)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인종문제는 미국의 가장 큰 딜레마이다. 이 딜레마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의 커다란 도전을 보내고 있다.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광범한 우주적 정신은 분리제도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막다름에 몰아넣는다.

인종 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닌 단일성에 대한 시끄러운 부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으며, 노예도 없고 자유자도 없으며,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기 때문이다. ...필요에 따라 시야를 넓히고, 현실에 도전하며, 인습을 타파하는 것은 언제나 교회의 책임이 되어 왔다. 분리를 깨뜨려 버리는 과업은 오늘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하나의 피할 수 없는 의무이며 책임이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수한 일들이 있다. 첫째, 교회는 이미 관념화한 인종적 증오의 뿌리를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법률을 가지고도 이루어 낼 수는 없는 일이다. 모든 인종적 편견은 근거 없는 공포와 의심과 오해에서 비롯하는 것이 보통이다. 교회는 일반 민중의 마음에 방향을 지시하는 데 있어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역할을 해 낼 수 있다. 교회는 종교 교육이라는 전달로를 통하여 이와 같은 신념들의 불합리성을 지적할 수 있다.

교회는 우월인종이라든가 열등 인종이라는 땅위의 관념은 인류학적 실증에 의하여

85) Martin Luther King, Freiheit., S.12-13.

이미 완전 무결하게 반증된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또한 형제애의 원칙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담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은 인간의 마음과 비전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도록 하는 일이다. 교회는 교인들을 깨우쳐서 인간의 보다 큰 평안은 인간의 일시적인 요청에다 마지막까지 충성을 바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요청에다 전 생명을 드려 헌신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만 한다. 교회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너희는 천국의 시민이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종 문제의 해결을 기도함에 있어서 교회가 이루어 낼 수 있는 보다 한걸음 나아간 노력은 사회 개혁운동의 앞장서는 일이다. 교회는 관념의 영역에서만 능동적이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활동의 투기장 속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로 교회는 그 자체에서부터 분리의 멍에를 제거해야만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교회는 외부의 악을 향한 공격에서 실효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다.⁸⁶⁾ 이처럼 킹의 신학은 기독교세계관으로, 즉 성경적 토대 위에서 사회를 향하여 뛰어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의 사회개혁에는 하나님 중심 주의가 놓여 있으며, 사회개혁의 이면에는 기도의 힘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킹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상대로 부당한 대우와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흑인들과 각계 각층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의 토대위에서 사회개혁을 부르짖으며 실천했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존 녹스와 사무엘 러드포드와 그 후대의 종교개혁자들의 반열에 서있다.

프란시스 웨퍼는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교회와 사회 제 분야에 실천한 인물이다. 웨퍼는 종교개혁자의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의 사상으로 교회를 보았고, 이와 동시에 사회를 보았다. 웨퍼는 이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웨퍼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과 사상을 지금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이어받아 실천할 것을 주장했다.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인본주의 세계관을 타파할 것을 외치며, 사회에 기독교 세계관이 설립될 것을 원했

86) Martin Luther King, 「자유의 투쟁」, 홍동근 역, 1967, p.236-239.

다. 웨퍼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본다면, 웨퍼의 사상이 정확하게 종교개혁자의 흐름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웨퍼의 교회사에서의 위치는 종교개혁자들의 위치와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가운데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선구자라고 한다면, 웨퍼는 그 선구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신의 시대에 그 정신을 적용시키는 개발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웨퍼는 종교개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첫째, 남부에서 르네상스의 전성기의 대부분은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며 자율적이라는 인본주의적 이상을 토대로 하고 있었으며, 둘째, 유럽의 북부에서 종교개혁은 상반된 답변을 제시하고 있었다. 달리 말하면, 종교개혁은 르네상스의 전성기가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을 바로 그때 루터로 말미암아 폭발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 종교개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오직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서는 인류가 직면해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을 안출해낼 수 없는 것이었다. ... 오히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성경 자신의 주장, 즉 성경만이 유일한 궁극적 권위라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열린 관계 속에 있게 되는가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삶의 현재적 의미를 알게 되고 어떻게 올바른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함에 있어서 궁극적인 해답들을 갖게 되는가 하는 문제들에 있어서도 적절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의해 성경에 주어진 답변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의 번역본들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종교개혁 사상가들에게 권위는 성경과 교회로 양분되어 있지 않았다. 교회는 성경 위나 성경과 동일한 위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아래에’ 있었다. 오직 성경이었다. 이것은 기독교의 처음 세기들 이후에 교회에 침투하였던 인본주의적 왜곡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87) 이처럼

쉐퍼는 종교개혁을 성경의 권위를 회복한 사건이었다고 해석을 한다. 쉐퍼는 계속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서 사회전반을 보도록 요구한다. 즉 쉐퍼는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보았던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프리즘을 가지고 또한 사회를 보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쉐퍼는 종교개혁이 문화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 당연히 종교개혁은 성경의 권위를 내세워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와 문화에도 성경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로인해 종교개혁은 사회와 문화에 성경적 세계관을 구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쉐퍼는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종교개혁적 성경관이라고 말한다.

종교개혁이 문화에 미친 영향들을 쉐퍼는 언급한다. 먼저 종교개혁이 낳은 음악들을 보자. 생생한 제네바 시편집, 시편들로 이루어진 1562년의 성가집이 있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의 지도자로서 칼빈의 뒤를 이었던 위대한 지도자 테오도르 베자는 시편 본문을 번역하였고, 루이 부르조아가 선별하거나 작곡한 곡들이 여기에 붙여졌다. 또한 루터는 훌륭한 작곡자이면서 뛰어난 성악가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요한 세반스찬 바흐가 있는데 이는 분명히 종교개혁으로부터 등장한 작곡자들의 최고봉이었다. 그의 음악은 바흐 자신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당시의 종교개혁 문화와 성경적 기독교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루터가 없었다면 바흐도 없었을 것이다. 바흐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곡의 형식과 가사들을 성경의 진리와 결부시켰다.⁸⁸⁾ 계속해서 쉐퍼는 종교개혁이 국가에 미친 영향을 말한다. 종교개혁이 뿌리를 내린 국가들은 정치적 조류가 변하였다. 마르틴 부처의 입헌주의 사상은 종교개혁 국가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종교개혁 국가에 절대군주의 세력을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마르틴 부처와 함께 사무엘 러드포드의 [법이 왕이다](Lex Rex)는 종교개혁의 원리가 국민들이 군주를 정치적으로 통제한다는 이론을 정립하였기 때문이었다.

87) Schaeffer, F. 「기독교 서구관」, 박문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pp. 127-129.

88) Ibid., pp. 134-136.

쉐퍼는 종교개혁의 복음 선포는 복음의 중심적인 메시지에 부차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회와 통치에 있어서 형식과 자유를 위한 참된 토대를 가져왔다고 말한다.⁸⁹⁾ 또한 쉐퍼는 자연의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쉐퍼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인류가 사는 지구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자연의 파괴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쉐퍼의 자연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은 자연과 인간들은 하나님의 무한성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동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들은 각각의 사물을 창조에 의한 적합한 분야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⁹⁰⁾ 이처럼 쉐퍼는 자연과 환경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에서도 기독교인의 올바른 자리매김과 자연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성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쉐퍼의 모습은 소위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라고 자처하면서 교회와 개인의 영적인 모습만을 강조하는 반쪽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소유한 기독교인들에게 진정한 종교개혁 정신의 모델을 제시한다고 할 수가 있다. 이어서 쉐퍼는 [기독교 서구관]에서 환경에 이어 낙태, 아동 학대, 유아 살해, 안락사에 대해서 사회의 성경적 개혁을 주장한다. 쉐퍼는 사회가 기독교적 합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사회학적인 법의 토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⁹¹⁾ 즉, 쉐퍼는 사회에 성경적세계관이 설립될 때에, 진정한 사회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을 예견하면서 성경적 세계관의 설립을 위해 투쟁했다. 그러므로, 쉐퍼는 성경적 세계관의 부재로 인하여 유발된 낙태, 독재 정부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투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쉐퍼의 투쟁은 오직 성경의 원리에 의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낙태나 독재정부, 환경분야에 대한 쉐퍼의 반대는 성경적 세계관에 의하여 사회를 바라볼 때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쉐퍼는 정부에 대한 시민의 항거라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다. 이러한 쉐퍼의 이론은 존 녹스와 사무엘 러드포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마틴 루터 및 존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시민적

89) Ibid., pp. 145-147.

90) Ibid., pp. 39,46.

91) Ibid., p. 300.

통치자들에 대한 저항권을 유보했던 반면에, 녹스는 좀 더 급진적이었다.⁹²⁾ 그리고 사무엘 러드포드의 [법이 왕이다]라는 책은, 법이 왕이고, 만약 왕과 정부가 법에 불복종한다면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법은 하나님의 법에 토대를 둔다는 내용이다. 러드포드는 계속해서 로마서 13장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정부는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고 세워졌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하나님의 법의 원칙들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국가의 행위들은 비합법적인 것으로서 전제 행위들이다. 전제는 하나님의 재가 없이 통치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어쨌든 러드포드는 전제정부는 사탄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복종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전제에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⁹³⁾ 쉘퍼는 이러한 녹스와 러드포드의 영향을 받아서, 시민적 불복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시민적 불복종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자율적이 되어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고 쉘퍼는 주장한다. 이처럼 쉘퍼는 종교개혁자의 정신으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프리즘을 가지고 사회 개혁에 대해서 주장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복음주의 지도층은 반쪽 종교개혁의 정신을 소유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정신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회와 사회를 바라보는 총체적인 개혁이었음을 쉘퍼를 통해서 입증할 수가 있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은 교회개혁과 더불어 사회개혁도 동일한 무게로 다루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Sola Scriptura’(오직 성경으로)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관심은 교회개혁에만 머물수가 없었다.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프리즘으로 내가 서 있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들이 교회개혁을 소리높여 외친 것 처럼 사회개혁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성경적 세계관은 종교개혁 발발의 동인이었다. 종교개혁이 발생하기 전, 교황청은 몰락과 부정부패로 이미 성경과 결별한 상태였다. 또한 르네상스 운동이 종교개혁의 시대와

92) 각주27참조

93) op.cit., pp. 517,518.

거의 동시에 발발했는데, 이도 성경의 계시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자 하는 운동으로 성경적 세계관의 부재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으며, 또 에크하르트와 같은 타올러와 같은 신비주의자들의 출몰이 종교개혁의 동인 중의 하나가 되었는데, 이 신비주의는 성경을 벗어난 내면의 직관, 즉 직접적인 체험을 추구했으며, 이러한 사상이 수도원 운동과 결부하여 널리 퍼졌다. 이 신비주의는 성경적 세계관을 거부하는 또 하나의 종교개혁의 동인이 된 사건이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성경적 세계관’이 놓여 있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의 토대 위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의 순수성 회복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동일하게 사회의 순수성 회복을 위해서도 투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종교개혁가 루터와 쾰링거, 칼빈, 녹스의 직업관, 윤리관, 정치관, 교육관, 사회관 등 사회 제 분야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참여와 개혁을 통하여서 이들 종교개혁자들이 사회의 개혁에 발벗고 나섰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종교개혁자들의 업적이 단지 영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인 부분과 소위 신앙인들이 세속적이라고 거부하는 육적인 부분도 동시에 취급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들 종교개혁자들은 플라톤의 이분법적인 영성을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영성 즉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동일하게 여기는 전인적인 영성을 취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교회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똑같은 프리즘을 통해서라면, 종교개혁자의 개혁이 교회나 사회 어느 한 면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자의 유산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프란시스 웨퍼를 다루었는데 이들은 성경의 토대 위에서 진정한 사회개혁을 이루었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킹 목사는 좀 더 실천적으로 그 당시 사회의 불의를 성경의 토대 위에서 바로잡고자 했으며, 웨퍼 목사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침투해 있는 사회 제 분야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수립을 위해서 성경의 토대 위에 선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 끝으로 종교개혁자의 종교개혁의 동인

은 성경적 세계관이었으며,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와 사회를 바라볼 때, 교회와 사회의 개혁을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으며, 종교개혁자의 정신을 따를때에 동일하게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사회를 지속적으로 성경의 토대위에서 바라보아야만 한다.

Bibliography

1. 국문서

- 손규태, 「혁명적 신앙인들」,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87.
- 이양호, "칼빈의 경제사상" 「신학논단」, 1992. 8.
- 이창근, 「한국사회와 종교」 서울:도서출판 엘멘, 1990.
- 이형기, 「전통과 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0.
- 홍치모, 「북구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서울: 성광문화사, 1984.
- _____,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영국혁명」,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1.
- _____, 「칼빈과 녹스」, 서울: 성광문화사, 1984

2. 번역서

- Bainton. H. R, 「16세기의 종교개혁」, 서영일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1992.
- _____, 「마틴루터의 생애」,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 Gabler Ulrich, 「쓰빙글리 그의 생애와 사역」,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93.
- Gonzales. Justo, 「종교개혁사」, 서영일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1992.
- Graham. F,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김영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33.
- Martin Luther King Jr, 「사랑의 힘」.
- _____, 「자유의 투쟁」, 홍동근 역, 1967.
- Luther Martin, 「루터전집」, 서울:컨콜디아사, 1986.
- _____,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논문」, 지원용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4.
- Stusfler. Ernest, 「경건주의 초기역사」, 송인설.이훈영 역, 서울: 솔로몬, 1993.
- Schaeffer. F, 「기독교 사회관」, 생명의 말씀사, 1995.
- _____, 「기독교 서구관」, 박문재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5.

· Wallace. S. R, 「칼빈의 사회 개혁 사상」, 박성민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3. 영 서

· Calvin,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New York: The Westminster Press, 1986.

· Carter Lindberg, *Beyond Charity : Reformation Initiatives for the Poor*
Mineapolis : Fortress Press, 1993

· Ernst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trans,
Olive Wyon, 2 vols.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31.

· Graham.W.F.,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New York: John
Knox Press, 1978.

· H. Holborn, *Ulrich von Hutten and the German Reformation*, New York,
1965.

· Jasper Ridley, *John Knox*,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8

· J. WW. Blench, *Preaching in England*, Oxford, 1964.

· Knox, John, *Works*, New York : AMS Press, Vol. vi, 1968.

· Lindberg Carter, *Beyond Charity : Reformation Initiatives for the Poor*
Mineapolis : Fortress Press, 1933.

· Luther Martin, *Treatise on Good Works, in Luther's Works(LW)* 55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55.

· Martin Luther King, *Freiheit*.

· Max Stackhouse, *Creeds, Society, and Human Rights : A Study in*
Three Cultures Grand Rapids, Michigan : Eerdmans, 1984.

· R. H. 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Penguin Books.

· Ridley Jasper, *John Knox*, New York : Oxford, Univ. Press. 1968.